

요한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과 가나안 정복 모티프

김경식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부교수)

[초록]

본 논문은 계시록에 빈번히 사용되는 ‘땅에 거하는 자들’(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어구가 가나안 정복 모티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계시록에서 약속의 땅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과 관련된 개념임을 보여준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문법적 구조와 문자적으로 똑같은 구약 어구는 민수기(LXX)에 2회(14:14, 33:55), 그리고 선지서(LXX)에 2회(겔 12:19, 단 3:1) 등장한다. 계시록과 문자적 유사성을 지닌 구약 본문의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는 문맥상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킨다(민 33:52, 55, 단 3:1-7). 또한, 이 어구는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정복의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다(민 14:14, 33:55). 구약, 특히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싸워야 하고 이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위해 그 땅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계시록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구 전,후로 가나안 정복 관련 개념이 함께 등장한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계시록 결론부의 새 하늘 그리고 특히 새 ‘땅’의 ‘상속’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이라는 개념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 광야생활, 가나안 정복/정착이라는 출애굽 여정 관련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가나안 정복/정착 모티프와 밀접한 개념이 다름 아닌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는 가나안 정복/정착의 의미를 극대화해 준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기 위해서 민수기 33장의 명령처럼, 우상숭배자이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타협하지 말고, 이겨야 한다.

주제어

땅에 거하는 자들, 출애굽 모티프, 가나안 정복, 새 하늘과 새 땅, 상속

1. 들어가는 말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땅에 거하는 자들’(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이라는 표현이 9회 사용되고 있고(3:10, 6:10, 8:13, 11:10[2회], 13:8, 13:14[2회], 17:8), 전치사가 변형된 ‘땅에 사는 자들’(τοὺς ἐν αὐτῇ κατοικοῦντας)이 1회 사용되고 있고(13:12), 전치사가 없이 사용된 ‘땅에 거주하는 자들’(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τὴν γῆν) 형태가 1회 사용되고 있다(17:2). 또한, 이 어구에서 동사가 달라진 ‘땅에 앉아 있는 자들’(τοὺς καθημένους ἐπὶ τῆς γῆς)이라는 표현이 1회 사용되고 있다(14:6).

이 어구들은 언뜻 보기에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 즉 인류를 가리키는 표현처럼 보지만, 이 어구가 나타나는 계시록의 전후 문맥을 보면 대다수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계 12:12, 13:6)과 대조가 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의 대상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우상과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혹은 미혹된

자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보컴(Richard Bauckham)이 지적한 대로, 이 어구는 계시록에서 거의 일관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¹⁾ 하지만, 이 어구가 왜 계시록에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그 이유가 이 어구의 구약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계시록에 빈번히 사용되는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가 가나안 정복 모티프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계시록에서 약속의 땅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과 관련된 개념임을 보여주하고자 한다.²⁾

2. 계시록에 나타나는 ‘땅에 거하는 자들’ 선행 연구

계시록에 사용되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연구가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리처드 보컴(Richard Bauckham)이다.³⁾ 그는 이 어구를 ‘열방의 회심’이라는 주제와 관련해 분석하면서 계시록에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파악했다. 그는 이 어구가 계시록과 같은 시기에 기록된 묵시문헌들인 에녹 1서(the Parables of Enoch), 2 Baruch, 그리고 4 Ezra에도 등장한다고 밝힌다. 또한, 계시록에서 ‘온 세상’(3:10; 12:9; 16:14) 혹은 ‘온 땅’(13:3)이라는 어구와 동의어라고 본다.⁴⁾ 그

1) Richard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Studies on the Book of Revelation*, (Edinburgh: T&T Clark, 1993), 241.

2) 출애굽, 광야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정착의 개념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출애굽 개념과 가나안 정복/정착 개념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던 상태에서의 자유와 구원과 관련된 개념이지만, 가나안 정복/정복은 약속의 땅 상속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신약학자들은 이 두 개념을 섞어 출애굽 모티프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cf. Daniel Lynwood Smith, “The Use of ‘New Exodus’ in New Testament Scholarship: Preparing a Way through the Wilderness,”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14.2 (2016): 207-243.

3)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238-41.

4)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239.

에 의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는 짐승을 향한 모든 인간의 경배 그리고 바벨론이 자행한 땅의 부패를 가리킨다.⁵⁾ 보کم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계시록에 등장하는 또 다른 어구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의 대비로 읽어 내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지만, 이 어구를 구약 배경과 연결하지는 못한다.

또한, 신약의 구약사용 관점에서 계시록을 주석한 그레고리 비일(G. K. Beale)도 그의 주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우상숭배자인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전문용어라고 규정한다.⁶⁾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그는 이 어구와 관련해 더 이상의 구약 배경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다. 비일(Beale)이 계시록에서의 구약사용에 민감한 학자라는 점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관련 구약 배경을 보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계시록에 사용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연구한 최근의 학자로는 토마스 아이스(Thomas D. Ice)가 있다. 그는 환란 전 휴거(Pre-Tribulation) 관점에서 계시록에 등장하는 불신자들과 환란의 관계를 다루면서 이 어구를 분석한다.⁷⁾ 아이스의 계산에 의하면 계시록에서 이 어구가 9구절에서 11회 사용된다. 그는 흥미롭게도 이 어구의 구약 배경을 분석하고 있는데 구약에 거의 50회 정도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다. 그는 이 어구가 구약 문맥에 따라서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혹은 온 세상에 사는 인류를 가리키기도 한다고 분석한다.⁸⁾ 그리고 두 번째 의미인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인류를 의미하는 구약의 문맥은 모두 심판의 문맥이고, 또한 미래에 있을 대환란(the Tribulation)과 관련 있다고 주장한다.⁹⁾ 이어서 그는

5)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240.

6)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9), 498. 그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a technical term in the Apocalypse for idolaters”라고 설명한다.

7) Thomas D. Ice, “The Meaning of Earth Dwellers” in *Revelation, Bibliotheca Sacra* 166 (July-September 2009), 350-365.

8) Ice, “The Meaning of Earth Dwellers”, 350.

‘땅에 거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계시록 본문들을 차례로 주해하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대환란의 기간에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지 않은 완고한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결론 내린다.¹⁰⁾ 아이스(Ice)의 연구는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의 구약 배경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가치가 있지만, ‘땅에 거하는 자’ 어구와 구약의 출애굽/가나안 정복 모티프 사이의 연관성을 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오스본(Grant Osborne)은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가 항상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칭한다고 본다.¹¹⁾ 또한, 이 불신자들은 짐승을 경배하고 추종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구약과 관련해 이 어구를 해석하지는 않고, 계시록 자체 문맥에서만 이 어구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윌리엄슨(Peter S. Williamson)도 이 어구가 계시록에서 11번 중에서 10번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하나님께 소속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며,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 등장하는 ‘세상’과 유사한 용례로 사용된다고 주장한다.¹²⁾ 오스본이나 윌리엄슨은 둘 다 구약 배경과 ‘땅에 거하는 자들’ 사이의 연관성에는 관심이 없다.

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앞서 지적한 보컴(Richard Bauckham)처럼 유대 묵시문학의 배경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를 들면, 어니(David E. Aune)는 그의 계시록 주석에서 구약에서의 용례를 살피면서 이 어구는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가리키는 어구라고 밝힌다.¹³⁾ 그리고 난 후 그는 이 어구가 초기유대교 묵시문학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데, 계시록에서도 항상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¹⁴⁾ 흥미롭게도 어니는 구약에서 이 어구

9) Ice, “The Meaning of Earth Dwellers”, 352.

10) Ice, “The Meaning of “Earth Dwellers”, 364.

11) Grant R. Osborne,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2002), 193.

12) Peter S. Williamson,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2015), 130.

13) David E. Aune, *Revelation 1-5* (Dallas: Word, 1997), 240.

가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가리킨다는 점을 보기는 했지만, 이 배경과 계시록과의 연관성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콰스터(Craig R. Koester)도 묵시문헌과 요한계시록을 비교하면서 묵시문헌에서는 이 어구가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으로서 긍정적 의미도 지니고 있고, 심판의 대상이라는 부정적 의미도 있다고 분석해 낸다.¹⁵⁾ 하지만, 계시록은 유대교 묵시문헌에 나타난 두 가지 의미 중 부정적인 개념만을 발전시켜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대적자를 지칭하는 어구로 사용한다고 주장한다.¹⁶⁾ 스몰리(Stephen S. Smalley)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불신자들을 지칭한다고 밝히면서, 초기유대교문헌에서는 열방의 심판이라는 문맥에서 사용된다고만 간략히 지적한다.¹⁷⁾ 콰스터나 스몰리 역시 구약 가나안 정복 개념과 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 사이의 연관성을 놓치고 있다.

물론, 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전부 악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만 보는 학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벡위스(Isbon T. Beckwith)같은 학자는 이 표현이 묵시문헌에 주로 악인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하지만, 예녹서에서 때로는 의인(37:2, 40:6), 때로는 온 인류(70:1)를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는 점을 지적한다.¹⁸⁾ 이어 그는 계시록에서 이 어구는 예녹서 70:1과 마찬가지로 온 세상 즉 인류 전체를 나타내는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의인과 악인, 신자와 불신자를 다 포함한다고 본다.¹⁹⁾ 하지만 그의 주장은 계시록 문맥에서 이

14) Aune, *Revelation 1-5*, 240.

15) Craig R. Koester, *Revelation: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326.

16) Koester, *Revelation*, 326

17) Stephen S. Smalley, *The Revelation to Joh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of the Apocalypse* (London: SPCK, 2005), 92.

18) Isbon T. Beckwith, *The Apocalypse of St. John*, (New York: Macmillan, 1919), 483.

19) Beckwith, *The Apocalypse of St. John*, 483, 최근 연구에서 한칠흠도 계 3:10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신자와 불신자 전체를 지칭하는 포괄적 어구라고 본다. 한칠흠

어구의 쓰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통해 살핀 내용을 요약하자면, 계시록에 빈번히 사용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부정적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많은 학자가 지적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학자들 가운데 몇몇은 이 어구의 구약 배경을 다루면서 계시록의 해당 어구를 해석하려는 노력은 해 왔지만, 그 어떤 연구도 출애굽 여정/가나안 정복 모티프와 연관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해석한 시도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의 빈틈을 메워보려는 시도이다.

3. ‘땅에 거하는 자들’의 구약 배경

계시록에 등장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는 구약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계시록의 여러 상징이나 이미지가 많은 경우 구약에서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도 구약 배경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²⁰⁾ 본 논문이 이 어구가 구약적 배경이 있음을 밝히게 될 것이다. 이 어구의 의미를 해석하려 했던 지금까지의 시도들은 앞서 살핀 대로 이 어구의 구약 배경 특히 출애굽여정/가나안정복 모티프와의 연관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 어구가 구약, 특히 민수기에서 온 개념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던 가나안 거주민인 우상숭배자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땅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 개념을 대조적으로 도드라지게 하는 어구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구약 본문에 사용되는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가 계시록에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본

“요한계시록 3:10의 한글 번역에 대한 제언, 『성경원문연구』 48호 (2021년 4월), 185-187.

20) 김경식, 『구약을 품은 신약 본문 해석』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248. 또한 송영목,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대화』 (서울: CLC, 2014), 72.

논문은 신약의 구약사용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는 문자적 유사성, 개념적 유사성, 그리고 주제적 유사성을 채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²¹⁾

가. 문자적 유사성

계시록에 사용되는 ‘땅에 거하는 자들’(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어구와 문자적으로 동일한 어구가 구약에는 의외로 많지 않다.²²⁾ 민수기에 2회(14:14, 33:55), 에스겔서에 1회(12:19) 그리고 다니엘서 1회(3:1) 사용되는 것이 전부이다.

| 구약 | 계시록 |
|---|--|
| 민 14:14 ἀλλὰ καὶ πάντες οἱ <u>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u> ταύτης ἀκηκόασιν ὅτι σὺ εἶ κύριος ἐν τῷ λαῷ τούτῳ ὅστις ὀφθαλμοῖς κατ’ ὀφθαλμοὺς ὀπτάξῃ κύριε καὶ ἡ νεφέλη σου ἐφέστηκεν ἐπ’ αὐτῶν καὶ ἐν στύλῳ νεφέλης σὺ πορεύῃ πρότερος αὐτῶν τὴν ἡμέραν καὶ ἐν στύλῳ πυρὸς τὴν νύκτα | 계 3:10 ὅτι ἐτήρησας τὸν λόγον τῆς ὑπομονῆς μου, καὶ γὰρ σε τηρήσω ἐκ τῆς ὥρας τοῦ πειρασμοῦ τῆς μελλούσης ἔρχεσθαι ἐπὶ τῆς οἰκουμένης ὅλης πειράσαι <u>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u> . |

²¹⁾ Richard B. Hays,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29-32. Kyoung-Shik Kim, *God Will Judge Each One According to Works: Judgment According to Works and Psalm 62 in Early Judaism and the New Testament, BZNW 178* (Berlin: de Gruyter, 2011), 34-37. 문자적 유사성(verbal similarity)은 구약과 신약 본문 사이에 단어(word)와 어구(phrase), 혹은 어절(clause), 더 나아가 문장(sentence)이 동일하거나 유사한가를 살피는 기준이다. 개념적 유사성(conceptual similarity)이란 구약과 신약 본문 사이에 비슷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주제적 유사성(thematic similarity)은 구약과 신약 본문이 서로 같거나 유사한 주제(theme)를 말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개념적 유사성은 대체로 문장 대 문장의 차원의 유사성이라면, 개념적 유사성은 주로 단락 대 단락 수준의 유사성을 가리킨다.

²²⁾ Thomas D. Ice는 그의 논문에서 구약에 이 어구가 약 50회 정도 사용된다고 주장하지만, 계시록 본문과의 문자적 유사성(verbal similarity)이 아닌 개념적 유사성(conceptual similarity)만을 기준으로 분석한 잘못이 있다. Ice, “The Meaning of Earth Dwellers”, 350.

민 33:55 ἐὰν δὲ μὴ ἀπολέσῃτε 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 ἀπὸ προσώπου ὑμῶν καὶ ἔσται οὗς ἐὰν καταλίπητε ἐξ αὐτῶν σκόλοπες ἐν τοῖς ὀφθαλμοῖς ὑμῶν καὶ βολίδες ἐν ταῖς πλευραῖς ὑμῶν καὶ ἐχθρεύουσιν ἐπὶ τῆς γῆς ἐφ' ἣν ὑμεῖς κατοικήσετε

겔 12:19 καὶ ἐρεῖς πρὸς τὸν λαὸν τῆς γῆς τάδε λέγει κύριος τοῖς κατοικοῦσιν Ἱερουσαλημ ἐπὶ τῆς γῆς τοῦ Ἰσραὴλ τοὺς ἄρτους αὐτῶν μετ' ἐνδείας φάγονται καὶ τὸ ὕδωρ αὐτῶν μετὰ ἀφανισμοῦ πίνονται ὅπως ἀφανισθῇ ἡ γῆ σὺν πληρώματι αὐτῆς ἐν ἀσεβείᾳ γὰρ πάντες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ν αὐτῇ

단 3:1 ἔτους ὀκτωκαιδεκάτου Ναβουχοδονοσορ βασιλεὺς διοικῶν πόλεις καὶ χώρας καὶ πάντας 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 ἀπὸ Ἰνδικῆς ἕως Αἰθιοπίας ἐποίησεν εἰκόνα χρυσῇν τὸ ὕψος αὐτῆς πηχῶν ἐξήκοντα καὶ τὸ πλάτος αὐτῆς πηχῶν ἕξ καὶ ἔστησεν αὐτὴν ἐν πεδίῳ τοῦ περιβόλου χώρας Βαβυλωνίας

겔 6:10 καὶ ἔκραξαν φωνῇ μεγάλῃ λέγοντες· ἕως πότε, ὁ δεσπότης ὁ ἅγιος καὶ ἀληθινός, οὐ κρίνεις καὶ ἐκδικεῖς τὸ αἷμα ἡμῶν ἐκ τῶν κατοικούντων ἐπὶ τῆς γῆς;

겔 8:13 Καὶ εἶδον, καὶ ἤκουσα ἐνὸς αἰετοῦ πετομένου ἐν μεσουρανήματι λέγοντος φωνῇ μεγάλῃ· οὐαὶ οὐαὶ οὐαὶ 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 ἐκ τῶν λοιπῶν φωνῶν τῆς σάλπιγγος τῶν τριῶν ἀγγέλων τῶν μελλόντων σαλπίζειν.

겔 11:10 καὶ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χαίρουσιν ἐπ' αὐτοῖς καὶ εὐφραίνονται καὶ δῶρα πέμψουσιν ἀλλήλοις, ὅτι οὗτοι οἱ δύο προφῆται ἐβασάνισαν 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

겔 13:8 καὶ προσκυνήσουσιν αὐτὸν πάντες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οὐ οὐ γέγραπται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ἐν τῷ βιβλίῳ τῆς ζωῆς τοῦ ἀρνίου τοῦ ἐσφαγμένου ἀπὸ καταβολῆς κόσμου.

겔 13:14 καὶ πλανᾷ 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 διὰ τὰ σημεῖα ἃ ἐδόθη αὐτῷ ποιῆσαι ἐνώπιον τοῦ θηρίου, λέγων τοῖς κατοικοῦσιν ἐπὶ τῆς γῆς ποιῆσαι εἰκόνα τῷ θηρίῳ, ὃς ἔχει τὴν πληγὴν τῆς μαχαίρης καὶ ἔζησεν.

겔 17:8 Τὸ θηρίον ὃ εἶδες ἦν καὶ οὐκ ἔστιν καὶ μέλλει ἀναβαίνειν ἐκ τῆς ἀβύσσου καὶ εἰς ἀπώλειαν ὑπάγει, καὶ θαυμασθήσονται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ὧν οὐ γέγραπται τὸ ὄνομα ἐπὶ τὸ βιβλίον τῆς ζωῆς ἀπὸ καταβολῆς κόσμου, βλεπόντων τὸ θηρίον ὅτι ἦν καὶ οὐκ ἔστιν καὶ παρέσται

위의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는 거주하다(κατοικέω)는 동사의 남성 복수 분사형 앞에 관사가 존재하

고(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이 명사적 분사를 뒤따라오는 전치사구가 ἐπὶ τῆς γῆς이다. 그리고 계시록의 이 어구와 문자적 유사성을 정확하게 보이는 구절들은 구약(LXX) 전체를 통틀어 총 4개 본문밖에 없다.

결국, 계시록에 등장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문법적 구조와 문자적으로 똑같은 구약 어구는 민수기(LXX)에 2회, 그리고 선지서(LXX)에 2회 등장한다. 따라서 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의 구약 배경을 찾으려면 이 4개의 본문을 일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다.²³⁾

민수기 14:14에서 ‘이 땅 거주민’(πάντες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ταύτης)이라고 번역된 이 어구는 민수기 14장에 여러 번 반복되는 “그 땅”(3,6,7,8,9,16)이라는 어구 그리고 특히 8절의 “이 땅”(τὴν γῆν ταύτην)이라는 어구를 고려해 볼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는 민족들을 가리킨다.²⁴⁾ 계시록의 어구와 동일 형태인 남성 복수형 분사어구(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에 전치사구(ἐπὶ τῆς γῆς)가 결합되어서 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와 민수기 14:14는 문자적으로 완벽한 일치를 보인다.

또한, 민수기 33:55는 더 분명하게 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과의 문자적 유사성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계시록에 사용되는 이 어구는 변이형도 있다. 빈번히 사용되는 형태는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이지만, 다른 형태인 τοὺς ἐν αὐτῇ κατοικοῦντας가 1회 사용된다(계 13:12).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두 어구가 민수기 33장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민수기 33:52(LXX)에 가나안 거주민을 가리키면서 계시록 13:12와 같은 형태인 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ν τῇ γῇ가 사용되고 있고, 이어 55절에서 계시록에

23) 신약에서의 구약사용의 방법론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약 본문에 구약이 사용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빈도수의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신약 저자가 구약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 어구 혹은 이와 비슷한 어구를 신약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신약 저자가 해당 구약 본문을 신약 본문에 의도적으로 가져와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원칙이다.

24) George Buchanan Gray, *Numbers*, ICC (Edinburgh: T & T Clark, 1903), 157.

자주 사용되는 형태인 *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가 다시 사용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을 지칭한다. 또한, 민수기 33:50-56과 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우상숭배라는 개념적 유사성을 놓고 볼 때, 민수기 33장 본문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중요한 배경 본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가나안 정복 모티프가 계시록의 이 어구들 문맥과 민수기 33장 문맥에 함께 등장한다는 사실은 두 본문 사이의 연관성을 확실하게 뒷받침한다.

에스겔서 12:19의 *τοῖς κατοικοῦσιν Ἱερουσαλημ ἐπὶ τῆς γῆς τοῦ Ἰσραηλ*는 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과 문자적 유사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뿐 아니라, 19b에 계시록에 사용된 유사한 어구인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ν αὐτῇ*가 사용되고 있어 다시 한번 계시록 13:12의 해당 어구(*τοὺς ἐν αὐτῇ κατοικοῦντας*)와 문자적 유사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에스겔 12:19의 문맥에서 이 어구들은 하나님 심판의 결과로 포로로 끌려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²⁵⁾ 포로로 끌려가 앞으로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어적으로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부른다.²⁶⁾ 따라서 에스겔과 계시록 사이의 개념적 유사성 그리고 이에 따른 두 본문 사이의 연관성은 희미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3:1(LXX)의 어구(*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도 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와 문자적 유사성을 보여준다. 다니엘서 3장(LXX)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의 우상숭배 지시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내려진다는 점에서 우상숭배 개념이 있고, 또한 이 개념이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가 함께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점은 계시록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듯

²⁵⁾ Margaret S. Odell, *Ezekiel* (Macon, Georgia: Smyth & Helwys, 2005), 140. Lamar Eugene Cooper, Sr. *Ezekiel*, (Broadman & Holman, 1994), 147.

²⁶⁾ Daniel I. Block, *The Book of Ezekiel 1-24* (Grand Rapids: Eerdmans, 1997), 382.

하다. 게다가 다니엘서 3:2(LXX)에 사용되는 πάντα τὰ ἔθνη καὶ φυλὰς καὶ γλώσσας 어구는 계시록에 사용되는 어구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ἐκ πάσης φυλῆς καὶ γλώσσης καὶ λαοῦ καὶ ἔθνους 그리고 그 변이형들) 어구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앞으로의 논의에서 더 분명해지겠지만,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와 함께 등장하는 출애굽/가나안 정복이라는 개념이 다니엘서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땅에 거하는 자들’과 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희미해 보인다.²⁷⁾

나. 우상숭배

계시록과 문자적 유사성을 지닌 구약 본문의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는 문맥상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킨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민수기서와 다니엘서가 명확하게 이 어구와 우상 숭배와의 연관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먼저, 민수기 33장 55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의 원주민’(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제거하라고 명령한다. 같은 지시가 이미 52절에서 반복되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석상과 우상, 그리고 산당을 허물어버리라(ἐξαρεῖτε τὰς σκοπιάς αὐτῶν καὶ πάντα τὰ εἰδῶλα τὰ χωνευτὰ αὐτῶν ἀπολεῖτε αὐτὰ καὶ πάσας τὰς στήλας αὐτῶν ἐξαρεῖτε)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다.²⁸⁾ 민수기 33장 문맥에 따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가나안땅에서 멸망시켜야 할 이유가 이들의 우상숭배

27) 구약에서 모세오경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민수기보다 후대의 글인 다니엘서가 민수기 33장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가져다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두 본문 사이에 문자적 유사성이 있고, 또한 우상숭배라는 개념적 유사성도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서의 구약사용’(the Old Testament in the Old Testament)이라는 패턴을 볼 수 있다.

28) W. H. Bellinger, Jr. *Leviticus, Numbers* (Peabody: Hendrickson, 2001), 308.

임을 명백하게 보여준다.²⁹⁾

다니엘서 3장 1절(LXX)에 사용되는 ‘땅에 거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느부갓네살이 금신상(εἰκόνα χρυσῆν)을 세우고, 그가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2절, LXX)에게 이 신상에 절하도록(πεσόντες προσκυνήσατε τῇ εἰκόνι τῇ χρυσῇ ἣν ἔστησε Ναβουχοδονοσορ βασιλεύς) 지시한다(단 3:5 LXX).³⁰⁾ 그리고 이 지시에 모든 이들이 금신상에게 경배한다(7절 LXX, προσεκύνησαν τῇ εἰκόνι τῇ χρυσῇ). 물론 칠십인역 다니엘서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사는 영역을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ἀπὸ Ἰνδικῆς ἕως Αἰθιοπίας)라고 1절에서 명시하지만, 느부갓네살의 통치영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음은 분명하다.

다. 가나안 정복

구약에 등장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는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킬 뿐 아니라, 또한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정복의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다. 구약에 사용되는 4개 중 두 개의 어구가 등장하는 민수기 본문들은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민수기 14:14에서 ‘이 땅 거주민’(πάντες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ταύτης)이라고 번역된 이 어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민 14:9). 이 본문의 문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후에 보인 불신앙적 반응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진노를 다루고 있다.³¹⁾ 이 상황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진멸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아선다. 그러면서 하나

²⁹⁾ 존 H. 세일해머,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하권, 김동진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5), 366.

³⁰⁾ cf. Stephen R. Miller, *Daniel* (Nashville: Broadman and Holman, 1994), 109-111.

³¹⁾ Bellinger, Jr. *Leviticus, Numbers*, 231.

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진멸했다는 소식을 ‘이 땅의 거주민’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듣게 될 것이라고 호소한다.³²⁾ 여기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사용되는 문맥에 흥미롭게도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민수기 14장(LXX)에서 반복되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3, 6, 7, 8, 9, 16, 23, 24, 30, 31). 결국,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16절)인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³³⁾

또한, 민수기 33:55에 사용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가나안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민수기 33장은 전 반부는 과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이동하면서 진을 쳤던 경로를 설명한 후(33:1-49), 50절부터 시선을 미래로 돌려 앞으로 있을 가나안 정복과 땅의 분배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33:50-56)을 기록한다.³⁴⁾ 이어지는 민수기 34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κληρονομίαν)으로 주셨다는 내용이 반복된다(34:2, 13-15, 특히 33:53).

지금까지 살펴본 구약의 ‘땅에 거하는 자들’ 관련 어구는 사람을 가리키는 분사형태인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이었다. 하지만, 분사형태 어구뿐만 아니라 ‘그 땅에 거하다’는 어구는 ‘거하다’(κατοικέω)는 동사와 땅(γῆ)이 이 동사의 직접 목적어로 사용되면서 κατοικέω τὴν γῆν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³⁵⁾ 이 형태로 사용될 때, 이 어구는 많은 경우 구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그리고 그 땅에 거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창 12:6, 13:7, 민 32:17, 33:53, 수 2:24, 7:9, 9:11,

32) cf. Bellinger, Jr. *Leviticus, Numbers*, 231.

33) Gray, *Numbers*, 157.

34) Bellinger, Jr. *Leviticus, Numbers*, 306, 308.

35) 자료는 문자적 유사성을 찾기 위해 LXX 본문들을 기준으로 Gramcord와 Bibleworks 9, 그리고 Logos software를 사용해 필자가 분석한 내용이다.

24:18, 삿 1:32-33, 대상 22:18, 대하 20:7). 그리고 분사 이외의 동사 형태($\kappa\alpha\tau\omicron\iota\chi\acute{\epsilon}\omega$)와 전치사구($\acute{\epsilon}\pi\iota\ \tau\eta\varsigma\ \gamma\eta\varsigma$)의 결합 형태도 구약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도 이 어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는 자들 관련해 사용되거나(수 24:15), 가나안땅 정복/상속(신 12:10, 30:20)과 관련되었다는 점이 매우 의미심장하다.

결국, 구약에서 ‘땅에 거하다’라는 어구는 자연스럽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구약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들을 지칭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구약, 특히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과 싸워야 하고 이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위해 그 땅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4. 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과 가나안 정복 모티프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에 나타나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문자적, 개념적 유사성을 근거로 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구약 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계시록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구 전후로 가나안 정복 관련 개념이 함께 등장한다. 계시록 자체에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정복/정착의 개념이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와 함께 사용되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구약과 계시록 본문 사이의 연관성을 약속의 땅 ‘상속’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더 확실한 근거가 될 것이다.

가.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시험 (계 3:10)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계시록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말씀에서이다(계 3:10).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시험의 때에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대목에서 다가올 시험의 때(*τῆς ὥρας τοῦ πειρασμοῦ τῆς μελλούσης ἔρχεσθαι*)를 언급한다. 이 시험의 때는 온 세상(*τῆς οἰκουμένης ὅλης*)에 임하고,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을 시험하는 때다.³⁶⁾ 여기서 ‘이기는 자’(12절 ‘Ο νικῶν)와 ‘땅에 거하는 자들’(10절) 사이의 대조가 있다. 특히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과 극명한 대조가 되는데, 이후 전개될 계시록의 나머지 부분(4-20장)에서 더 명확해진다. 여기서 출애굽 여정/가나안 정복 개념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종말론적 복의 내용이다.

먼저, 땅에 거하는 자들(3:10)과 이기는 자(3:12) 사이의 극명한 대조가 가나안 정복 개념과 관련이 있다. 3장 12에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계시록 21장 7절에 가서 ‘상속’(*κληρονομήσει*) 개념으로 요약된다.³⁷⁾ 흥미롭게도 이 ‘상속’은 땅과 관련된 개념이고, 특히 구약에서 가나안 정복과 약속의 땅에서 정착해 살아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참고, 민 33:53 *κλήρω*). 결국, 계시록에 의하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시록 3:12의 이기는 자들과 대조되는 3:10의 ‘땅에 거하

36) 계시록에서 ‘온 세상’(3:10, 16:14)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동의어가 아니다. ‘온 세상’이 지리적 의미를 가진 반면에, 계 3:10에 사용된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가 계시록에서 일관되게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이 이 견해를 뒷받침한다. Contra 한철흠 “요한계시록 3:10의 한글 번역에 대한 제언,” 185-187. 한철흠은 이 어구의 헬라어 표현(*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보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개념에만 집중하다 보니 계시록에서의 이 헬라어 어구의 사용 문맥에 민감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37) 엄밀히 말하면 계 21:7의 상속개념은 7교회에 보낸 말씀들의 각 결론부에 나오는 보상 개념들 전체를 요약하는 내용이다. Osborne, *Revelation*, 739.

는 자들’은 가나안 정복과 관련되어 약속의 땅을 상속받지 못할 자라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계시록 3장에서도 빌라델비아교회에 준 종말론적 약속도 가나안 정착과 관련이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낸 말씀 중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됨(12절) 그리고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됨(12절)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여기 12절에 나오는 ‘성전’과 ‘새 예루살렘’에 관한 언급이 가나안 정복/정착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뒷받침한다.³⁸⁾ 출애굽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에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 구약 모세오경과 역사서의 내러티브(narrative)는 이 과정을 그대로 설명한다. 새 하늘과 새 땅(성전과 새 예루살렘, 계 3:12)을 상속하는 이기는 자들과 대비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온 세상에 임하는 시험의 때에 자신들의 우상숭배적 본성을 드러내며, 결국 심판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제외된다.

나.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을 위한 호소(계 6:10)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가 두 번째로 사용되는 본문은 인재앙 중 다섯째 인을 다루는 본문이다(6:10). 다섯째 인재앙의 성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 재앙이 다른 인재앙과 마찬가지로 재앙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성도들의 죽임을 당해 순교하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⁹⁾ 반면에 다섯째 인은 다른 인재앙들이 세상에 임하는 이유를 다룬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재앙의 내용이 아니라 재앙의 이

³⁸⁾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계 21-22)은 이미 계시록 2-3장에서 에덴동산(2:10), 성전(3:12), 그리고 도시(성, 3:12)의 이미지로 설명되고 있다. 또한, 계시록 21-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도시(성) 개념은 ‘상속’ 개념과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³⁹⁾ Robert H. Mounce,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8), 146.

유를 다루고 있는 것이 다섯째 인재앙이 다루는 주제라고도 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 다섯째 인재앙 중 죽음당한 성도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큰소리로 탄원하는 내용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내용이다. 계시록에서 최초로 분명하게 성도들이 하는 탄원의 기도가 심판과 관련해 언급되는 본문이다.⁴⁰⁾

언뜻 보기에 여기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출애굽/가나안 정복과 정착의 개념이 무관해 보일 만큼 본문의 연결고리가 희박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성도들의 탄원 가운데 “우리의 피를 갚아 달라”(10절, *ἐκδικεῖς τὸ αἷμα ἡμῶν ἐκ τῶν κατοικούντων ἐπὶ τῆς γῆς*;)는 호소는 가나안 정복/정착 개념과의 연관성을 암시한다.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는 표현은 신명기 32:43에 나오는 ‘종들의 피를 갚으사’(*τὸ αἷμα τῶν υἱῶν αὐτοῦ ἐκδικᾶται*)라는 어구를 연상시키기 때문이다.⁴¹⁾ 흥미로운 점은 이 신명기 32장이 바로 ‘모세의 노래’라 불리는 본문이다.⁴²⁾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지속적 실패를 대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다.⁴³⁾

무엇보다도 신명기 32장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47절에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⁴⁴⁾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네”(신 32:43) 일은 가나안 땅에 있는 원

40) Osborne, *Revelation*, 284.

41) Michael Tilly, “Deuteronomy in Revelation,” *Deuteronomy in the New Testament*, ed. Maarten J. J. Menken & Steve Moyise (London: T&T Clark, 2007), 172-73. Beale은 계 6:10의 하나님 호칭(‘거룩하고,’ ‘참되신’)이 유일하게 신명기 32:4에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Beale, *Revelation*, p.393). Beale의 이 주장은 신명기 32장이 10절이 계 6:10에 사용되고 있다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

42) Eugene H. Merrill, *Deuteronomy* (Broadman & Holman, 1994), 407.

43) Walter Brueggemann, *Deuteronomy*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277.

44) Peter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76), 378.

수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언약관계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는 의미이다.⁴⁵⁾

또한, 계시록 6:10에 암시되고 있는 신명기 32:43의 내용인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τὸ αἷμα τῶν υἱῶν αὐτοῦ ἐκδικᾶται)라는 어구 다음에 이어지는 신명기의 구절은 ‘자기 밭과 자기 백성을 위해 속죄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 구절의 칠십인역은 καὶ ἐκκαθαριεῖ κύριος τὴν γῆν τοῦ λαοῦ αὐτοῦ(‘주께서 그의 백성의 땅을 정결케하실 것이다’)로 번역해석하여 히브리어 본문보다 좀 더 약속의 땅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의 종들의 피를 갚고 대적들을 복수함으로써 약속의 땅이 정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밝힌다.

결국, 계시록은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와 계시록 6장 10절에서의 신명기 32장 암시 그리고 이를 통한 가나안 정복의 연상을 통해, 성도들의 피를 흘린 사람들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신실한 성도가 약속의 땅을 상속하기 위한 일임을 보여 준다.

다. 세 번의 화 선포와 땅에 거하는 자들(계 8:13)

계시록 8장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언급되는 본문은 일곱 나팔 재앙이 묘사되는 문맥이다.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앞으로 임하게 될 나머지 세 가지 나팔 재앙인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 나팔 재앙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선언하는 상황에서 이 어구가 사용된다.

계시록 8:13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 가나안 정복/정착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계시록 8-9장에서 여리고 정복 사건(수 6)이 밑그림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의해 뒷받침된다. 비일(Beale)이 통찰력 있게

⁴⁵⁾ Brueggemann, *Deuteronomy*, 282.

지적했듯이, 계시록 8장에 묘사되는 침묵, 이어지는 일곱 천사가 부는 나팔, 그리고 언약궤에 대한 암시는 여호수아 6장에 묘사된 여리고 함락 장면을 둘러싼 사건과 너무나 흡사하다.⁴⁶⁾ 계시록 8:1의 침묵은, 여리고성 함락과 관련해 6일 동안 이 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되었던 침묵(수6:10)을 연상시킨다.⁴⁷⁾ 계시록 8장에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모습(8:2)은 일곱 제사장이 양각나팔을 부는 모습을 연상시킨다(수 6:4,8,9).⁴⁸⁾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관한 계시록의 암시(8:3-5, 11:19)와 여리고성을 돌기 위해 제사장들이 메고 가던 하나님의 언약궤(수 6:4,7,8)가 두 장면의 연관성을 높여준다.⁴⁹⁾ 일곱 나팔 재앙의 서두부(8:1-5)와 여리고 함락 장면과의 흥미로운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듯하다. 나팔재앙이 7개라는 점도 여리고 함락을 위해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돌았던 날짜의 수가 7일이었다는 점과 흥미롭게도 닮아 있다.⁵⁰⁾

물론, 계시록의 나팔재앙이 출애굽 10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⁵¹⁾ 따라서 나팔재앙에서 여리고 정복 장면 암시(allusion)를 보는 것은 어색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계시록은 여러 개의 구약 이미지나 상징을 환상 장면에 중첩해서 사용한다. 예로, 계시록 4장에서 이사야 6장에 묘사된 하늘 보좌와 스랍 등장 장면이 에스겔서 1장의 네 생물 환상과 결합한다.⁵²⁾ 또한, 계시록의

46)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468. 여기에서 제시되는 나팔재앙과 여리고성 함락 장면의 연관 근거는 Beale의 논의에서 전부 가져온 것이다.

47)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468.

48)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468.

49)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468.

50)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469.

51)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465. cf. 물론 Koester는 나팔재앙과 출애굽 10재앙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차이점이 더 크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이 재앙의 배경을 그리스-로마 배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Koester, *Revelation*, 445-6.

52) G. K. Beale & D. A. Carso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s Use of the*

새 예루살렘 환상 장면(계 21-22장)에서 에덴동산, 성전, 그리고 도시(성) 이미지가 중첩된다.⁵³⁾ 또, 계시록 9장의 황충 재앙 묘사에서 출애굽 10재앙중 메뚜기 재앙과 요엘서의 황충재앙이 중첩되고 있다.⁵⁴⁾ 김혜란이 주장한 것처럼,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뱀 후손 간의 대결 구도 모티프, 출애굽 모티프 그리고 거룩한 전쟁 모티프가 중첩되어 있다.⁵⁵⁾ 이런 중첩은 계시록에서 드물지 않은 패턴이다. 그리고 이 결합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중첩이다.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통치라는 주제, 그리고 새 예루살렘 환상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출애굽 10재앙과 여리고 정복 장면이 ‘심판’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중첩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계시록 8장 나팔재앙의 여리고성 함락 장면 연상 효과는 계시록 8:13의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해 준다. 이미 계시록에 등장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가 구약 민수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는 자들을 지칭하며, 가나안 정복/정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필자는 밝혔다. 결국, 계시록 8:13의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계시록 8장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인 나팔재앙으로 우상 숭배자들인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이들과 타협하지 않은 그의 백성들로 약속의 땅을 상속하게 하실 것임을 가나안 정복 과정 중 여리고 함락 장면을 연상시키며 역동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7), 1100.

⁵³⁾ Beale & Carso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s Use of the Old Testament*, 1150.

⁵⁴⁾ 김경식, 『구약을 품은 신약 본문 해석』, 306-317.

⁵⁵⁾ 김혜란, “요한계시록 12:13-17에 나타난 세 모티프 중첩 사용연구,” 『신약연구』 18권 3호(2019): 383-414.

라. 두 증인과 땅에 거하는 자들(계 11:10)

두 증인의 사역을 설명하는 계시록 11장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들은 두 증인이 죽게 되자,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낸다(11:10).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선지자라고 명명되는 두 증인이 자신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출애굽 여정/가나안 정복 및 정착과 관련된 어구라는 점은 계시록 11장의 여러 본문에서 확인된다. 우선,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곳을 직접 ‘애굽’(8절)이라고 지칭한다. 또한, 두 증인의 사역 중 “물을 피로 변하게”(계 11:6) 하던 이적은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 출애굽 재앙을 연상시킨다(출 7:20).

이뿐 아니라,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좀 더 섬세한 구약 암시(allusion)가 10절과 11절에 각각 존재한다. 10절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했다(*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χαίρουσιν ἐπ’ αὐτοῖς καὶ εὐφραίνονται*)고 이들의 반응을 설명하는데, 흥미롭게도 칠십인역 시편 104:38(=105:38 MT)의 출애굽사건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εὐφράνθη Αἴγυπτος ἐν τῇ ἐξόδῳ αὐτῶν)라는 어구와 흡사하다.⁵⁶⁾ 이 시편에서 묘사된 출애굽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는 ‘애굽인이... 기뻐하였으니’라는 구절은 계시록 11:10과 개념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 ‘기뻐하다’(εὐφραίνω)는 똑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출애굽 재앙 때문에 괴로워하던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자 ‘기뻐한다.’

이 시편과 관련해 의미심장한 부분은 시편 104:38 (LXX)에서 출애굽사건과 애굽인들의 반응을 설명한 다음, 이어서 가나안 정복과

⁵⁶⁾ NA 28판도 측주에서 시편 105:44를 계시록 11:10과 관련있는 구절로 제시한다.

정착을 설명하면서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시 105:44 HB = 시 104:44 LXX)라고 한 대목이다. 물론, 이 시편의 문맥은 애굽인들이 자신들을 두렵게 만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뻐했다고 설명하지만, 계시록은 애굽인들 대신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한다고 묘사한다. 하지만, 시편 105 (=시 104 LXX)의 문맥에서 출애굽사건과 가나안 정복/정착(시105:44)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3절에 출애굽(ἐν τῇ ἐξόδῳ αὐτῶν)이 묘사되고, 곧이어 다음 구절인 44절에서 가나안 정복(상속, ἐκκληρονόμησαν 104:44 LXX)이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시록 11장 10절의 ‘땅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한다’라는 어구는 가나안 정복과 이어지는 연결고리라 볼 수 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지금 기뻐하지만, 나중에는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11절).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는 사람들(계 11:10)과 가나안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계시록 11장 10절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1절에서도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키는 구약 암시(allusion)가 등장한다.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나자 구경하던 자들이 크게 두려워한다. 이때 구경하는 자들의 반응을 묘사하는 ‘크게 두려워 한다’(καὶ φόβος μέγας ἐπέπεσεν ἐπὶ τοὺς θεωροῦντας αὐτούς)는 구절이 출애굽 사건을 다루는 출애굽기 15장 16절(“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ἐπιπέσοι ἐπ’ αὐτοὺς φόβος καὶ τρόμος μέγας)을 배경으로 하는 어구이다. 두 구절 사이에 문자적, 개념적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⁵⁷⁾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이다.⁵⁸⁾ 따라서,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출애굽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노래에서는

57) 밑줄 그은 부분이 문자적 유사성(verbal similarity)을 보여주는 내용들이다.

58) 존 H. 세일해머,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하권 (서울: 새순출판사, 1995), 91.

가나안 정복과 관련한 내용이 바로 계시록 11:11에서 암시된 출애굽기 15:16을 포함한 구절인 출애굽 15:15-17에 등장한다.⁵⁹⁾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소식을 들은 주변 민족들뿐 아니라 가나안 주민(15절)도 “놀라움과 두려움”(φόβος καὶ τρόμος μεγέθει)의 반응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실 것(17절, cf 13절)임이 분명하게 암시되고 있기 때문이다.⁶⁰⁾ 과거 광야 여정 그리고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했던 똑같은 반응을 이제 계시록 11장의 ‘땅에 거하는 자들’이 보인다(11:11).

또한, 여리고성 함락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13절에서 사용된다. 13절에 의하면 그 날에 큰 지진이 있고, 이 결과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진다(καὶ τὸ δέκατον τῆς πόλεως ἔπεσεν). ‘성이 무너진다’는 표현은 흥미롭게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πεσεῖται αὐτόματα τὰ τεῖχη τῆς πόλεως) 장면을 연상시킨다(수 6:5 LXX).⁶¹⁾ 성의 벽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여리고성 함락 관련해 여호수아서에서 사용되는데, 같은 단어인 ‘성’(πόλις)과 ‘무너지다’(πίπτω)라는 동사가 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 바다짐승을 경배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계 13:8, 12, 14)

계시록 13장에는 세 번에 걸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등장한

⁵⁹⁾ Alan Cole, *Exodus* (Downer Grove: IVP, 1973), 125-6.

⁶⁰⁾ 덤브렐은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에 언급되는 산, 처소, 성소는 “약속의 땅이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이라고 설명한다. 윌리엄 J. 덤브렐, 『언약신학과 종말론』, 장세훈 역 (서울: CLC, 2000), 56. 또한, Victor P. Hamilton, *Exodus: An Ex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2011), 232. Hamilton은 이 모세의 노래 중 13-17절이 가까운 미래인 광야 여정과 시내산에의 도착과 관련이 있는지, 혹은 더 먼 미래의 일인 요단강을 건너서, 이후 약속의 땅을 정복함과 관련된 것인지 애매하며 본문 자체가 의도적인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⁶¹⁾ 성이 무너진다는 비슷한 표현이 사용되는 바벨론의 멸망(계 14:8, 16:19)도 여리고성 함락과 멸망을 그 배경으로 하는 듯하다.

다. 그리고 표현은 약간씩 변형이 되어 사용되는데, 8절에서는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라는 어구가 쓰이고, 12절에서는 τοὺς ἐν αὐτῇ κατοικοῦντας라고 표현되며, 마지막으로 14절에서는 8절과 같은 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 어구가 다시 사용된다. 그리고 이들은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8,12)로 묘사되거나, 땅짐승에 의해 미혹되어 바다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자들로 묘사된다(14절).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더 명확하게 가나안 정복 모티프와 관련이 있다. 물론 계시록 13장에 출애굽모티프가 사용되고 있다.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연상시키는 표현인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는 구절(계 13:4)이 있고, 죽임을 당한 어린양이라는 어구(계 13:8)는 유월절 어린양을 연상시킨다.⁶²⁾ 이 두 표현이 유월절 사건과 홍해사건을 연상시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계시록 13장에 나타나는 “땅에 거하는 자들” 명칭은 가나안 정복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 이유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민수기 33장을 연상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앞에서 논의한 대로, 민수기 33장은 가나안 정복을 확실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계시록 13장에 사용된 땅에 거하는 자들을 표현하는 어구들이 민수기 33장과 문자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우선, 민수기 33:52의 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ν τῇ γῇ는 계시록 13:12에 사용된 τοὺς ἐν αὐτῇ κατοικοῦντας 어구와 일치하고, 또한 민수기 33:55에 언급되는 ‘땅에 거하는 자들/그 땅의 원주민’(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은 계시록 13장 8절과 14절에 등장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과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한다. 둘째, 개념적 유사성의 기준으로 볼 때, 우상숭배라는 개념이 민수기와 계시록 본문 둘 다에 나타나고 있다. 민수기 33장 52절에서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제거해야 할 이유로 새긴 석상과 부어

62) ‘죽임을 당하다’(ἐσφαγμένου)라는 계 13:8의 헬라이어 동사가 출애굽 본문과 같다.

만든 우상, 산당이 언급되어 우상숭배가 가나안땅에 거하는 이들의 심판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계시록 13장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경배하다(προσκυνέω)는 동사를 2번이나 사용해 이들의 우상숭배를 적시한다(8,12). 셋째, 사탄의 세 연합체(사탄, 바다짐승, 땅짐승)와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는 ‘전쟁’(13:7, πόλεμος, 참고 12:17)을 묘사하는 계시록 13장의 주제는 구약 가나안 정복 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거하는 자들 간의 ‘전쟁’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참고, 수 4:13, 8:14, 11:19).

결국,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구약 특히 민수기 33장에서 가나안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 가나안 거주민들과 싸워서 이들을 약속의 땅에서 제거해야 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은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개념들 즉 땅에 거하는 자들과 연관된 우상 숭배, 거주민과의 전쟁 그리고 이김의 주제를 그대로 계시록 13장에 가져온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시록은 땅에 거하는 자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싸워야 할 대상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⁶³⁾

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땅에 거하는 자들(계 17장)

계시록 17장에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어구가 변이형을 포함해 총 2회 나타난다. 2절에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τὴν γῆν로 사용되고, 8절에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형태인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⁶³⁾ 물론 계시록 12-13장은 성도가 싸워서 이겨야 할 주대상으로 사탄과 그의 지상 대리자인 바다짐승과 땅짐승을 제시한다(참고 계 15:2). 그러나 ‘땅에 거하는 자들’ 또한 성도들이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인 것은 분명하다. 계 20:7-10은 ‘땅’의 사방 백성들이 성도들과 싸움을 한다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단지 수동적으로 우상숭배를 위해 미혹된 자들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도의 피를 흘리는 일도 하는 자, 즉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다(참고 계 6:10).

ἐπὶ τῆς γῆς가 사용된다. 흥미롭게도 이 두 표현 또한 민수기 33장에 등장한다. 민수기 33장이 계시록 13장에 사용되는 다른 형태의 ‘땅에 거하는 자들’의 배경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바로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계시록 17장에서 민수기 33장의 ‘땅에 거하는 자들’ 관련해 다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이상하지 않다. 먼저, 계시록 17장 2절의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τὴν γῆν은 민수기 33장 53절의 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τὴν γῆν와 정확히 문자적으로 일치한다. 게다가, 계시록 17장 8절의 땅에 거하는 자들(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은 민수기 33장 55절의 τοὺς κατ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 어구와 문맥상 격(case)만 변했을 뿐 완벽하게 일치한다. 둘째, 문맥상 두 본문 다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다. 계시록은 큰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음행했고, 또한 ‘땅의 사는 자들’도 음녀와 관련된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설명한다(17:2). 여기서 음행은 구약의 숙어적 표현으로 우상숭배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 알려진 사실이다.⁶⁴⁾ 앞서 설명했듯이,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시하며 경고하는 내용이다. 이때 사용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로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킨다.

또한, 계시록 17장에 등장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2, 8)이 구약 문맥에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라는 점은 ‘땅의 임금들’이라는 표현이 2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이 된다.⁶⁵⁾ ‘땅의 임금들’(οἱ βασιλεῖς τῆς γῆς)이라는 어구가 구약에서 처음 사용되는 본문은 여

64) 예를 들면, 이사야 57:5,7,8, 호세아 4:11-19.

65) ‘땅에 거하는 자들/땅의 주민(τοὺς ἐνοικοῦντας ἐπὶ τῆς γῆς)이라는 어구와 ‘땅의 왕들’(τοὺς βασιλεῖς τῆς γῆς)이라는 어구가 함께 등장하는 또 다른 구약 본문은 이사야 24:17-21(LXX)이다. 하지만, 이사야 본문에서 땅의 주민(‘땅에 거하는 자들’)의 헬라어 표현은 우리가 다루는 계시록의 ‘땅에 거하는 자들’(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과 다르다.

호수아 12:1이다. 그리고, 매우 의미심장하게도 여호수아 12장은 모세가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쳐 죽인 요단 저편의 왕들(수12:1-6)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 이편의 왕들 명단(수 12:7-24)을 기록한 본문이다.⁶⁶⁾ 결국, 여호수아 12장의 문맥에서 ‘땅의 임금들’은 다른 아닌 우상 숭배자들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막아서던 통치자들을 가리킨다(참고, 수 23:7, 24:14-15).⁶⁷⁾ 계시록에 등장하는 ‘땅의 임금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 상속을 막는 통치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⁶⁸⁾ 계시록 17장 2절에서 ‘땅의 임금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음녀와 음행을 했던 자들 혹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 즉 우상숭배자들로 묘사되고 있다.

게다가, 구약에서 바벨론 멸망과 고국으로의 귀환이 맞물린 개념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⁶⁹⁾ 구약의 선지서들 특히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고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새출애굽에 비유한다.⁷⁰⁾ 예레미야서와 계시록 17장의 연관성은 Beale이 지적했듯이 이미 계시록 17:1(“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⁶⁶⁾ Marten H. Woudstra, *The Book of Joshua* (Grand Rapids: Eerdmans, 1981), 200.

⁶⁷⁾ Woudstra, *The Book of Joshua*, 200. Thomas B. Dozeman, *Joshua 1-1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5), 480.

⁶⁸⁾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은 계 1:5, 6:15, 17:2, 18, 18:3, 9, 19:19, 21:24에 사용되고 있다. 비슷한 표현으로 ‘천하의 왕들’(τοὺς βασιλεῖς τῆς οἰκουμένης ὅλης)이 사용된다(계 16:14).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은 여호수아서(12:1)의 가나안 정복 모티프를 연상시키는 구절이고, ‘천하의 왕들’은 지리적 의미로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⁶⁹⁾ 에스겔서와 출애굽기 사이의 유사성은 다음을 참고하라. Rebecca G. S. Idestrom, “Echoes of the Book of Exodus in Ezekie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Vol 33.4 (2009): 489-520. 특히 새출애굽 모티프와 바벨론 심판과의 관계는 500쪽의 설명 참고.

⁷⁰⁾ Bryan D. Estelle, *Echoes of Exodus: Tracing a Biblical Motif* (Downers Grove: IVP, 2018), 184. Joshua E. Williams, “Promise and Failure: Second Exodus in Ezra-Nehemiah,” *Reverberations of the Exodus in Scriptures*, ed. R. Michael Fox (Eugene: Wipf & Stock, 2014), 74. 이사야 40-55장에 새출애굽의 모티프가 등장하고 있는데, 43장의 경우 바벨론에서의 고국귀환을 출애굽사건으로 묘사한다(사 43:14-21). 또한, 이사야 48:20-22에서도 새출애굽 모티프가 사용된다.

이 예레미야 51:13 (=28:13 LXX)의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를 암시(allusion)하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 확인된다. 예레미야 51장 36절의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고국으로의 귀환을 출애굽의 홍해사건에 빗대어 설명하는 구절이다.⁷¹⁾ 예레미야 50장 전반부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으로의 귀환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예레미야서는 포로생활 후 고국으로의 귀환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표현한다(렘 30:3). 결국 바벨론의 멸망이 새 출애굽사건으로 설명되고, 고국 땅으로의 귀환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에서의 정착에 빗대어 설명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시록 17장 음녀 곧 큰 바벨론의 멸망과 가나안 정복 사이의 연관성은 선지서의 이런 패턴을 고려해 보면 더 명확해진다.

5. ‘땅에 거하는 자들’과 약속의 땅 상속

계시록에 등장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계시록 결론부의 새 하늘 그리고 특히 새 ‘땅’의 ‘상속’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둘 다 ‘땅’과 관련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 백성에게 상속으로 주어지듯,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기는 자들에게 ‘상속’으로 주어진다(*κληρονομήσει*)고 밝히기 때문이다(계 21:7).⁷²⁾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의 가장 중요한 구약 배경본문인 민수기 33:53도 명백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상속으로(*ἐν κλήρῳ*) 주어졌다고 설명한다.⁷³⁾ 새 하늘과 새 땅은 ‘땅에 거하는 자들’과 타협하

⁷¹⁾ Estelle, *Echoes of Exodus*, 190-191. 예레미야 50장 33절도 애굽의 포로생활을 암시한다.

⁷²⁾ Millar에 의하면, 구약에서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에덴으로 묘사되면서, 상속으로 주어지는 에덴동산인 약속의 땅은 창세기 1-3장의 이미지로 설명된다. J. G. Millar, “Land,”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ed. T. Desmond Alexander & Brian S. Rosner (Downers Grove: IVP, 2000), 623.

지 않고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민수기 33장에 의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이다.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상속이라는 개념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 → 홍해사건 → 광야생활 → 가나안 정복/정착이라는 출애굽 여정 관련 이미지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계시록은 출애굽 모티프를 눈에 띄게 자주 사용하고 있다. 출애굽 10재앙을 연상시키는 나팔재앙 심판, 대접재앙 심판이 있다.⁷⁴⁾ 또한, 홍해사건을 떠 오르게 하는 계시록 15장의 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환상이 있다.⁷⁵⁾ 그뿐 아니라, 계시록 여러 곳에서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여정을 암시하는 내용이 산재해 있다. 예를 들면 42달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떠오르게 한다.⁷⁶⁾ 여자가 낳은 아이를 ‘독수리 날개로 덮어’ ‘광야에서’ 양육하는 장면도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킨다(출 19:4). 게다가 계시록의 각 심판 재앙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등의 현상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시내산 장면을 연상시킨다(출 19:18, 20:18). 그뿐 아니라, 계시록에서 환상이 여러 번 ‘광야’와 관련이 있는데(12:6,14, 17:3), 지금까지 계시록에서 출애굽여정 관련 사건들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광야에 대

73) cf. David Matthewson,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The Meaning and the Function of the Old Testament in Revelation 21.1-22.5*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89.

74) Benjamin G. Wold, “Revelation’s Plague Septets: New Exodus and Exile,” *Echoes from the Caves: Qumran and the New Testament*, ed. Florentino Garcia Martinez (Leiden: Brill, 2009), 280.

75) 계 12:16의 “땅이... 강물을 삼키니”나 계 16:2의 “강물이 말라서”도 홍해 사건을 암시한다.

76)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565. cf. Roloff는 다니엘서를 근거로 42달이라는 기간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 통치 기간의 공포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Jürgen Roloff, *Revelation* (Minneapolis: Fortress, 1993), 130. 흥미롭게도 Milgrom에 의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33장도 광야에서의 여정을 42개의 여정으로 묘사하고 있다. Jacob Milgrom, *Numbers*, (New York: JPS, 1990), 277.

한 이 언급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생활을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러한 출애굽사건 → 홍해사건 → 광야생활 등의 연결고리는, 계시록에 가나안 정복/정착 모티프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앞서 논의한 대로, 계시록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과 관련된 여리고성 정복과정을 암시하는 나팔재앙(계 8)과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진다(계 11:13)는 표현들이 사용되었다. 게다가, 약속의 땅 정복과 정착이라는 개념이 계시록에 사용된다는 주장은 계시록에서 초막절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계시록 7장에 등장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최종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어린양께 찬양할 때 이들이 들고 있는 것이 ‘종려 가지’이다. 종려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였다.⁷⁷⁾ 따라서 계시록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 환상에서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을 연상시킴으로써, 이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은 자들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정복/정착 모티프와 밀접한 개념이 다른 아닌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는 가나안 정복/정착의 의미를 극대화해 준다. 민수기 33장에 의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며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계시록은 구약 특히 민수기 33장의 ‘땅에 거하는 자들’의 개념을 가져와 사용하면서, 성도들이 이들과 타협하지 말고, 이들의 우상숭배를 제거해야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민수기 33:50-56의 가르침(우상제거의 권면)을 연상시킨다. 민수기

⁷⁷⁾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428.

에 따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우상숭배자들로 성도들이 타협하지 말아야 할 자들이다. 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항상 부정적으로 제시되는 이유가 바로 이 어구가 가나안 정복과 우상숭배와 관련된 구약개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시록은 구약의 가나안 거주민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의 개념을 가져오면서도, 그 의미를 확장한다. 계시록에 의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단순히 타협하지도, 본받지도 말아야 할 대상을 넘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계 14:6). 계시록에서 유일하게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땅에 거하는 자들’ 개념이 계시록 14:6에 사용된다. 그리고 이때 ‘땅에 거하는 자들’은 구약의 가나안 거주민을 연상시키는 어구(*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가 아닌 다른 형태인 *τοὺς καθημένους ἐπὶ τῆς γῆς*가 사용되는데, 그 이유가 민수기의 어구는 가나안정복 관련해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상숭배자들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사라진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하늘이고 새로운 땅이다. 무엇보다 ‘상속’으로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지 민족적 이스라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겔 47:21-23, 계 21:24, 26).⁷⁸⁾ 계시록은 정복의 대상인 ‘땅에 거하는 자들’ 개념을 구약에서 가져오면서도 긍정적인 의미 확장 가능성을 또한 구약 본문(겔 47:21-23)에서 보고 있다.

6. 결 론

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땅에 거하는 자들’(*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은 구약의 가나안 정복과

⁷⁸⁾ Millar, “Land,” 626.

관련이 있는 어구이다. 특히 민수기 33장에 배경을 두고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상속’으로 받기 위해 타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다. 구약 배경, 특히 민수기에 의하면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이다. 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출애굽 모티프와 관련해 놓치지 말아야 할 개념은 가나안땅 정복/정착 모티프이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은 가나안 정복 모티프와 관련이 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기 위해서 민수기 33장의 명령처럼, 우상숭배자로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타협하지 말고, 이겨야 한다. 계시록은 ‘땅에 거하는 자들’ 어구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가나안 정복 모티프를 구약에서 가져와, 상속으로 주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소아시아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권면하고 있다.

▶ 접수일: 2021년 7월 8일 심사일: 7월 20일 게재확정일: 9월 11일

[참고문헌]

- 김경식. 『구약을 품은 신약 본문 해석』.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0.
- 김혜란. “요한계시록 12:13-17에 나타난 세 모티프 중첩 사용연구.” 『신약연구』 18권 3호(2019): 383-414.
- 송영목. 『요한계시록과 구약의 대화』. 서울: CLC, 2014.
- 윌리엄 J. 덤브렐. 『언약신학과 종말론』. 장세훈 역. 서울: CLC, 2000.
- 존 H. 세일해머. 『서술로서의 모세오경』, 하권. 김동진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5.
- 한철흠. “요한계시록 3:10의 한글 번역에 대한 제언”. 『성경원문연구』 48호 (2021년 4월호): 176-195.
- Aune, David E. *Revelation 1-5*. Dallas: Word, 1997.
- Bauckham, Richard. *The Climax of Prophecy: Studies on the Book of Revelation*. Edinburgh: T&T Clark, 1993.
- Beale, G. K.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9.
- Beale, G. K. & D. A. Carso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s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7.
- Beckwith, Isbon T. *The Apocalypse of St. John*. New York: Macmillan, 1919.
- Bellinger, Jr. W. H. *Leviticus, Numbers*. Peabody: Hendrickson, 2001.
- Block, Daniel I. *The Book of Ezekiel 1-24*. Grand Rapids: Eerdmans, 1997.
- Brueggemann, Walter. *Deuteronomy*.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 Cole, Alan. *Exodus*. Downer Grove: IVP, 1973.
- Craigie, Peter C. *The Book of Deuteronomy*.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6.
- Dozeman, Thomas B. *Joshua 1-12*.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5.
- Estelle, Bryan D. *Echoes of Exodus: Tracing a Biblical Motif*. Downers Grove: IVP, 2018.
- Hays, Richard B.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Ice, Thomas D. "The Meaning of Earth Dwellers" in *Revelation, Bibliotheca Sacra* 166 (July-September 2009): 350-365.
- Idestrom, Rebecca G. S. "Echoes of the Book of Exodus in Ezekiel,"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Vol 33.4 (2009): 489-520
- Gray, George Buchanan. *Numbers*. ICC. Edinburgh: T& T Clark, 1903.
- Kim, Kyoung-Shik. *God Will Judge Each One According to Works: Judgment According to Works and Psalm 62 in Early Judaism and the New Testament*. BZNTW 178. Berlin: de Gruyter, 2011.
- Koester, Craig R. *Revelation: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4.
- Mathewson, David.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The Meaning and the Function of the Old Testament in Revelation 21.1-22.5*.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2003.
- Merill, Eugene H. *Deuteronomy*.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4.
- Millar, J. G. "Land."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Edited by T. Desmond Alexander & Brian S. Rosner. Downers Grove: IVP, 2000.
- Miller, Stephen R. *Daniel*. Nashville: Broadman and Holman, 1994.
- Mounce, Robert H.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98.
- Odell, Margaret S. *Ezekiel*. Macon, Georgia: Smyth & Helwys, 2005.
- Osborne, Grand R.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2002.
- Roloff, Jürgen. *Revelation*. Minneapolis: Fortress, 1993.
- Smalley, Stephen S. *The Revelation to Joh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of the Apocalypse*. London: SPCK, 2005.
- Smith, Daniel Lynwood. "The Use of 'New Exodus' in New Testament Scholarship: Preparing a Way through the Wilderness."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14.2. (2016): 207-243.
- Tilly, Michael. "Deuteronomy in Revelation." in *Deuteronomy in the New Testament*, Edited by Maarten J. J. Menken & Steve Moyise. London: T&T Clark, 2007.
- Williams, Joshua E. "Promise and Failure: Second Exodus in

Ezra-Nehemiah.” Reverberations of the Exodus in Scriptures.

Edited by R. Michael Fox. Eugene: Wipf & Stock, 2014.

Williamson, Peter S.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 2015.

Wold, Benjamin G. “Revelation’s Plague Septets: New Exodus and Exile.” *Echoes from the Caves: Qumran and the New Testament*.

Edited by Florentino Garcia Martinez. Leiden: Brill, 2009.

Woudstra, Marten H. *The Book of Joshua*. Grand Rapids: Eerdmans, 1981.

[Abstract]

The ‘Earth Dwellers’ and Canaan Conquest Motif in Revelation

Kyoung-Shik Kim

(Westminster Graduate School of Theology,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looks into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in Reve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anaan conquest motif in the Old Testament and shows that the phrase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in Revelation i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theme of inheritance of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as the promised land.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in Revelation is verbally similar to four texts in the Septuagint(LXX) translations of Numbers, Ezekiel and Daniel (Num 14:14, 33:55, Ezek 12:19, Dan 3:1).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in Numbers and Daniel refer to idolaters (Num 33:52, 55, Dan 3:1-7). Also,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concept of exodus and Canaan conquest motif (Num 14:14, 33:55). The similar expressions related to κατοικέω τὴν γῆν apart from the participle phrase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in the Old Testament frequently refer to the entrance into the promised land and the phrase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in the OT also signifies the nations that dwell in the promised land. The Book of Numbers in particular shows that God’s people should not compromise with “the dwellers in the land” when they enter the promised land, because they are idolaters. The Book of Numbers

also requires that the people of God should fight against the dwellers of the land. The Book of Revelation does not only use the phrase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but also other concepts associated with Canaan conquest in the immediate contexts of Revelation.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in Revelation is delicately linked with the theme of inheritance of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as the promised land. Revelation explains the theme of inheriting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as the promised land by employing the storyline of exodus journey (departure from Egypt, crossing the red sea, wilderness and finally Canaan conquest). Οἱ κατοικοῦντες ἐπὶ τῆς γῆς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concept of Canaan conquest because the phrase in the OT refers to the nations that indwell in the promised land. By employing the phrase from the OT and the Book of Numbers in particular, Revelation exhorts the people of God not to compromise with idolaters and instead to fight against them in order to inherit new heaven and new earth.

Key words

earth dwellers, new exodus motif, Canaan conquest motif, new heaven and new earth, inheritance.

